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병식
초당대학교 총장

6·4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는, 그 한복판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슬픔,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중에서 유행하고 있는 ‘화가 났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7가지’라는 말을 빌지 않더라도,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임이 틀림없다.

선거는 사실 결과보다는 과정의 예술이다. 출마 당사자에게는 결과인 당선 여부가 더 중요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거과정에서 얻어지는 과실(果實)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각 후보들이 지역사회에 관한 여러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이에 대하여 토론하고 수렴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다.

6·4 지방선거에 대한 이런저런 걱정들

사실 선거라는 제도는 그 자체가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최악을 피하는데 유효한 제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당선자에 대한 기대보다는 과정에서 다수가 만들어 낸 정책 의지, 아이디어, 공감대 등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는 이런 정책토론과 수렴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격정적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대부분 놓쳐 버렸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지역을 대표하고, 수많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며 인사권까지 거머쥔 선출직 장으로 어떤 사람을 선출할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총선거의 번 사표와 같은 현대판 단체장이 선출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사실 후보를 검증하는 작업은 선거에서 중요한 핵심 절차 중 하나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늦었지만 어떻게든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사실 후보의 검증은 물리적으로 생업에 바쁜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 같은 전문기관이 일정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총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과 단체들은 생태적으로 중앙정부의 대권이나,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

의 이익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사실 서민들이 직접 살고 있는 지방현장에 대한 사정들을 잘 모른다. 더욱이 회사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풀뿌리선거에는 관심이 없다. 걱정되는 대목이다.

돌이켜 보니,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있기 이전에도, 우리에게 주어졌던 금쪽같은 시간을 놓쳤었다. 불과 달포 전 일이다. 기억하시피 기초선거 출마자들의 정당공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심히 다투면서 소신해 버린 것이다. 정말 아까운 시간이었다. 결국 아무런 수확 없이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정치는 늘 우리에게 어떻게 스트레스를 주어 왔던 것 같다. 불과 얼마 전에는 대선에서 한 약속들을 바꾸어 버리고, 제1야당은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두고 곡에 하듯, 당명과 강령 등을 새로 내놓으니 유권자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창당된 지 불과 2년 여밖에 안된 정당이다.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려 해도 우리 정치는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4년 만에 한번 갖는 지방선거는 아직 많이 낯설다. 그 내용이 복잡하다. 개개인이 한 투표소에서 무려 7장의 투표지에 기표해야하는 선거이다. 시·도지사과 교육감을 포함한 광역단체

장, 구·시·군의 기초단체장, 정당비례대표를 포함하는 광역시·도의원, 구·시·군의 기초의원, 제주도의 경우는 교육위원까지 해서 총 3952명을 일시에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권자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세월호 보도 때문에 정보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선거까지 2주 남은 오늘까지도 후보가 누구인지, 무슨 정책과 아이디어를 가졌는지, 유권자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간에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산에서는 무소속의 오거돈 후보와 야당의 김영춘 후보 간에 연횡이 이루어지고, 광주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무소속의 강은태 후보와 이용성 후보가 합종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4년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다. 여러모로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로워야 할 것 같다. 분위기보다는 냉철한 판단을, 감성보다는 이성(理性)으로 투표하기를 기대해 본다. 감성보다는 아무래도 이성의 유효기간이 길 것이기 때문이다.

社說

오늘부터 선거운동, 과열·혼탁 경계해야

6·4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18대 대선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특히 지역적으로 광주시장 선거는 과거와는 달리 유력한 무소속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간에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기초단체장 선거전 역시 무소속 후보가 대거 출마하면서 그 귀추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도 5명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2명의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접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과열양상은 혼탁을 부르기 마련이고, 불·탈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실제로 광주·전남에서 지금까지 398여 건에 이르는 선거사범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38건은 검찰 등에 고발 조치됐다. 선거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정도이니 얼마나 많은 위

반 사례가 적발될지 걱정이 앞선다. 또한,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 여파와 각 당파의 뒤늦은 후보 공천으로 선거의 열기와 유권자의 관심도를 제고하기는 어렵다. 후보자의 면면이나 공약의 실체를 검증하지 못한 채 ‘갑갑이 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선택의 여하에 따라 4년간 지역살림, 지역민의 삶의 질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어느 선거여도 못지 않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한 이유다. 유권자들은 높은 도덕성과 자질·공약을 철저히 검증하고 불·탈법도 경계해야 한다. 혼탁은 후보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유권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후보자들도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흑색선전, 금품 등 탈법에 의존한다면 발등을 찌게 될 뿐이다. 모두가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가운데 차분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

호남고속철 일부 구간 안전에 문제 있다니

완공을 눈 앞에 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승객이 탑승하는 고속철의 특성상 대형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만에 하나라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철도시설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르면 창성군 북이면 호남고속철도 ‘노령터널’(연장 240m)과 ‘모암터널’(연장 105m)이 부실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서 두 터널에 대해 안전성을 검사했더니 안전율이 기준치인 1보다 훨씬 낮은 0.13~0.64로 파악됐다 는 것이다.

측정 결과는 해당 터널이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구조물의 천정에 쌓은 흙의 높이를 낮추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돌이킬 수 없으며,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또 다시 세월호에 버금가는 대형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도 결국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 있다. 해당 구간에서 시공한 업체는 수도권 전철의 다른 공구를 건설하면서 전문가 자문 없이 터널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라이닝(터널 허물어질 방지 구조체) 두께를 예초 9.5cm에서 3.5cm로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노령터널과 모암터널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해 보수공사를 서둘러야 한다. 결코 완공 시기를 맞추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열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만큼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부실과 불법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고속열차 고속으로 달리는 만큼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부실과 불법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고속열차 고속으로 달리는 만큼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칼럼

초여름 여성건강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원장

으로 발라줘야 한다. 또 공기 중의 미세먼지는 모공 속까지 들어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올바른 세안법으로 메이크업 잔여물과 먼지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다. 세안 시 거품을 충분히 낸 후 가볍게 문질러주며 헤드라인, 귀와 턱 주변까지 꼼꼼하게 닦고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로 여러 번 헹구내는 것이 좋다.

미인예전 채소와 과일이 어울린다. 건 강한 식습관이 건강한 피부 가꾸기의 지름길이다. 주름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 진피층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섬유구조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이 감소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설탕, 탄수화물이 포함된 단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당 성분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과 같은 단백질 성분에 붙어 피해를 주고 이 둘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피부 노화가 가속화된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단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인스턴트 음식과 커피는 노화를 부르는 지름길이다. 특히 커피는 하루 2잔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꼭 카페인을 섭취해야 한다면 커피 대신 녹차나 홍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채소와 과일 섭취도 늘려야 한다. 채소와 과일에는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한 데다, 이를 피부 깊숙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하면 피부관리는 물론 피부비만으로 인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생활습관병도 예방할 수 있다.

피 대신 녹차나 홍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채소와 과일 섭취도 늘려야 한다. 채소와 과일에는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한 데다, 이를 피부 깊숙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하면 피부관리는 물론 피부비만으로 인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생활습관병도 예방할 수 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도 젊고 생기 있는 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된다. 충분한 수분 공급은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해 축적하고 맑은 피부를 가꿔준다.

산부인과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갖지 말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여성 건강을 지켜보자. 흔한 동시에 많은 여성이 방치하고 있는 생리통, 생리불순, 부정기적인 출혈, 무월경, 세균성 질염, 칸디다성 질염, 방광염 등의 여성 질환은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과 치료로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고 또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가까운 산부인과를 방문해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여성 건강 지키기의 핵심이다. 아울러 35세 이상부터는 매년 한 번씩 유방암 검진을 시작해야 한다. 특히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에는 20대부터 검진을 실시해야 유방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조기발견도 가능하다.

여성 질환의 발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대한산부인과사회에서는 만 20세 이상 여성의 경우 연 1회 산부인과 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성 질환은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 우선 몸에 너무 짝 끼는 스타킹, 레깅스, 스킨니트 등의 옷은 착용을 자제해야 한다. 몸에 너무 꽉 조이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해 신진대사를 느리게 하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습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속옷은 통풍이 되지 않는 나일론 소재나 레이스 등은 피하고 가급적 면 소재의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 월경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가려움증 및 세균 번식 등을 막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리대 교체와 안전한 전문 여성 세정제로 세척해주는 습관을 생활화한다. 물이나 땀, 비에 젖은 옷이나 수영복, 욕구복 등 젖은 운동복을 장시간 착용하지 말고 사용 후에는 빨리 세탁해주는 것이 좋다.

기고

금연운동 확산으로 사람·자연 모두 건강한 세상을



주오남
조경예술가·홍익녹화조경 대표

대세를 이루고 있는 추세다. 정원을 디자인하다보면 법추에 넣고 싶지 않은 시설물이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흡연을 하는 공간과 재떨이다. 요즘은 만들거나 사들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데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조경에 방해가 된다. 더더욱 잔디나 나무 밑에 버려진 궂은것들을 보면 미관상으로도 보기 싫지만 근처 식물에 자라는 데도 피해를 준다. 이뿐이겠는가 산물의 주범이 담배요. 화재의 원인도 담배인 경우가 많아 화재로 인한 자연과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연스러운 조경이 오래도록 건강한 아름다움을 유지하도록 인간도 마찬가지로 다. 지속적이고 인위적인 행위가 반복되면 인간의 몸도 망가지기 마련이다. 요즘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까지 피해를 준다는 간접흡연 피해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에서 금연정책을 꾸준히 펴지고 있지만 한국 남성의 흡연율이 2011년도 기준 41.6%로 OECD 회원국 중에 1위이고, 금연감소율은 최하위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다고 한다. 세계 각국이 흡연으로부터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담배갑 디자인과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담배갑은 갈수록 화려하고 아름다워지고 있는 점도 모순이다.

호주는 2006년부터 흡연경고그림 규정을 시행, 담배갑 앞면 75%, 뒷면 90%의 크기로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묘사한 이미지를 의무적으로 넣도록 했다. 나아가 2012년 12월부터는 이른바 ‘무미지 않은 포장(Plain Package)’제도를 도입해 모든 담배갑에 정해진 크기와 서체의 활자만 쓰고, 로고와 브랜드 등의 이미지를 아예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태국도 지난해 10월부터 담배갑에 붙이는 흡연경고그림의 비율을 기존 55%에서 최대 85%까지

확대했고, 베트남도 2012년 6월 포괄적 담배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2013년 5월부터 흡연경고그림 면적을 넓혔다.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올해는 매년 무산되었던 담배갑에 흡연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법제화하는 작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추진했으나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하고 무산된 전례가 있다. 올해는 법제화가 통과되어 아름답지 못한 담배갑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사들을 상대로 천문화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승소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담배 소송은 승소패소 여부를 떠나 소송 과정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한 성분도 공개되고 이를 계기로 금연운동이 확산되어 사람과 자연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인의 가장 큰 적 우울증, 세심한 대책 마련 시급

며칠전 뉴스에는 몸이 아픈 아내를 15년간 돌봐 온 80대 노인이 간병에 지쳐 아내를 살해한 뒤 자살을 한 사건이 보도됐다. 뉴스를 들으며 고향에 칠순의 부모님이 계신 자식으로서 걱정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부모님 뿐만 아니라 노 또한 앞으로 그렇게 늙을텐데 싫어서 만감이 교차했다.

노인들에게 가장 큰 적은 우울증(은 외로움)이라 하고, 그 다음이 경제적 곤궁함이라 한다. 이 두가지가 겹쳐지면 최악의 상황이 되어 극단적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드러워진 고통화의 고늘이지만 그냥 놔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는 지자체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일전에 봉사활동을 갔던 어느 시설에서 전문강사가 어르신들에게 우울증 치료를 하는 것을 보았다. 형형색색의 천들을 이리저리 던지며 동작치료를 받는 모습이었는데 어르신께 여쭈어 보니 그럴 걸 하면 울적했던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하셨다.

또 한 요양시설에서는 탁구, 포켓볼 등 취미활동을 같이 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서로의 지체된 모습을 분석 있다. 모두 다 무척 밝아 보였다. 하지만 노년은

여유있게 보낼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게 문제다.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노후를 맞으면서 생활하고에 시달리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심한 외로움마저 겪게 되면 노인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덩달아 자살 위험이 더 높아지므로 그에 따른 대책을 더 세밀하게 세워줘야 하지 않을까. 항상 누군가의 관심이 있다면 비관스런 생각이 사라질 것이다.

▲신재민·목포시 수감동

無 等 鼓

1895년 어느 여름, 프랑스 출신의 유명한 곡에서 찰스 블론딘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설치한 밧줄 위를 걸어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 이벤트를 벌였다. 세계 최초의 시도였다. 때로는 눈에 안 대를 하고,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자유롭게 왕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중을 향해 “당신들은 내가 사람들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라고 물었다. 관중이 “믿는다”라고 답하자 블론딘은 즉석에서 ‘함께 폭포를 건널 사람’을 찾았다. 하지만 조용해진 관중들은 블론딘의 시선을 의문했다.

블론딘은 관중 가운데 한 남자에게 “당신은 날 믿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해리 콜코드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주저없이 “당신을 믿는다”라고 답했다. 블론딘은 콜코드를 등에 업고 무사히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데 성공했다. 후에 알려졌지만 콜코드는 블론딘의 매니저였다.

콜코드가 블론딘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긴 신뢰의 원천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매니저였기에 비즈니스 차원의 계산적인 마음이 기본적으로

로 깔려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의 뛰어난 줄타기 역량에 대한 신뢰다. 둘 사이가 아무리 가깝다 하지만 여러 해에 걸쳐 극한의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줄타기를 성공시키는 역량을 믿지 못했다면 그의 등에 업히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줄타기에 대한 열정과 철학을 같이 공유하고 정신적인 동지가 됐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신뢰의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고 의지함’을 뜻한다. 콜코드처럼 신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정성·태도·역량·경험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부하가 리더를 신뢰한다는 것은 리더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스스로를 취약한 상태로 만들더라도 리더가 충분히 부하를 보살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한 논란이 많다. 블론딘의 등에 업힌 콜코드처럼 우리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등에 업혀 목숨을 맡길 수 있을까? 리더십의 전제조건은 ‘신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재호 사회부장 lion@kwangju.co.kr

신뢰의 리더십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대처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지털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